

# 藝鄉 적시는 국악... “불륨을 높여주세요”

26일 광주국악방송(99.3MHz) 개국

지난 2001년 개국한 국악방송은 국악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창호에 드린 햇살’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인기프로그램도 많다.

‘소리의 분향’ 광주에서도 국악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됐다. 광주국악방송(99.3MHz)이 오는 26일 개국한다. 국립남도국악원이 자리한 진도, 민속국악원이 자리한 남원, 부산, 대구, 강릉 등에 이어 8번째 문을 연다.

광주국악방송이 의미있는 건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첫번째 방송국이라는 점이다. 광주국악방송은 앞으로 진도와 남원을 아우르는 호남지역 총국 역할을 하게 된다. 가청취권은 광주와 나주, 담양 일부 등 약 200만명으로 현재 시험방송중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홈페이지(www.gugakfm.co.kr)에서 ‘당터콩 플레이어’를 다운받거나 웹TV를 통해 청취할 수 있다.

18일 찾은 국악방송(KBC 광주방송 8층)에 은 한창 방송 장비 세팅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광고 없이 24시간 방송하는 국악방송 프로 중 광주에서 제작하는 분량은 주 28시간으로 전체 16.7%를 차지한다. 2015년에는 주 49시간, 2016년까지는 주 56시간까지 확대해 로컬 비율을 33%까지 늘릴 예정이다.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모두 4개로 공채를 통해 뽑힌 고미란 PD와 프리랜서 김재영 PD가 제작을 맡는다.

2시간 짜리 생방송 ‘빛고를 상사디아’(월~일 오후 2시~4시)는 광주국악방송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배태양 연극배우 윤희철(54)씨와 국악인 김산옥(36)씨가 진행을 맡으며 놀이패 신명의 박강의씨가 구성작가로 참여한다.

‘빛고를 상사디아’는 다양한 코너로 진행되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광주의 화제와 이슈를 토크로 풀어내고, 지역의 설화를 스토리텔링한다. 특히 마당극 형식을 취해 청취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예정이다. ‘영화 속 우리 음악’(조대영), ‘우리동네 문화유산’(전고필), ‘마음으로 가는 길, 오월길을 걷다’(조진태), ‘전라도 말 기행’(이갑) 등 요일별 코너도 눈길을 끈다.

“국악인은 아니지만 국악 창극과 마당극 등에도 출연한 적이 많아 생소하지 않은 않다. 파트너인 김산옥씨와 춘향이와 이몽룡이 되고, 심청이와 심봉사가 되는 등 다양한 캐릭터를 입혀 재미있게 진행하겠다.”



26일 개국하는 광주국악방송 진행자로 발탁된 김광복·홍유진·윤희철씨.(왼쪽부터) /김진수기자 jeans@

광주·나주·담양 일부서 청취 가능...현재 시험방송중

‘좋은아침 좋을시고’ ‘빛고를 상사디아’ 등 4개 프로 제작

10년 넘게 여수 MBC 라디오 ‘안단히 양반’ 코너를 맡고 있는 윤씨는 15년 전 광주교통방송 메인 진행자를 맡은 후 오랜만에 참여하는 거라 설렌다고 했다.

역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한류 정보 프로그램 ‘한류만세’(월~토 오전11시~12시)는 1부는 서울에서, 2부는 광주에서 진행한다. 진행자는 월드뮤직 그룹 ‘루트머지’ 홍유진(38)대표다. 가요급 주자인 홍씨는 광주 MBC ‘우리가락 우리문화’ 음악감독, ‘난장’ 음악 코디네이터로 참여하는 등 방송과도 인연이 있다. 방송쪽에서 일을 하기는 했지만 진행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 떨리기도 하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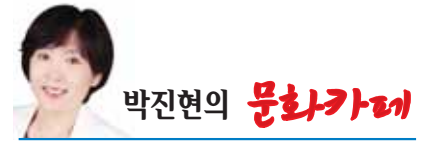
‘좋은 아침, 좋을시고’(월~일 오전6시~7시)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김광복 지휘자가 진행을 맡는다.

이른 아침에 진행되는 프로인 점을 감안, 고향 마을 이야기, 추억의 내용이 나는 내용으로 꾸러갈 예정이다.

의미있는 프로그램은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일요일 오전7시~8시)다. 광주·전남 지역의 시도 지정 문화재와 숨은 명인 명창들을 찾아 진행자 없이 육성으로 자신의 삶을 오롯이 듣는 프로그램이다. 광주의 소리꾼 방송춘이 첫회에 방송되며 삼쇠 정득채씨 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개국 지원자 광주에 머물고 있는 전성희 국악방송 차장은 “서울에서 유명 MC들을 섭외할 수도 있으나 미래를 위해 지역 MC들을 발굴했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요즘 서울 연극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입 국립극단 예술감독 임명을 놓고 시끄럽다. 사연 인즉슨 이렇다. 지난달 3일 문광부는 임기 3년의 국립극단 예술감독으로 김윤철(65) 국립예술자료원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만지작 거린 끝’ 내놓은 문광부의 카드가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한국연극협회를 비롯한 연극단체들은 신입감독이 제작 경험이 없는 평론가 출신이고 문광부가 현장 예술가들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 철회를 주장하며 국립극장 정문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로 대표선임을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사실상 ‘문화광주’의 핵심포스트들이 비어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향도 전임 상임지휘자가 떠난지 9개월만에 지난해 11월 이현세씨가 새로 취임한 바 있다. 이쯤 되면 ‘공석(空席) 불감증’이라 할 만 하다

그중에서도 아시아문화개발원 원장의 장기공석은 심각하다. 지난해 5월 당시 이영철 원장이 아시아문화개발원 전시예술감독으로 위촉되면서 10개월 ‘주인’을 맡지 못하고 있다. ‘과 추천인들이 고사한다’는 이유로 작년 말 후보추천방식에서 지난달 공개

## 문화계의 ‘공석(空席) 불감증’

연극인들을 성나게 한 결정적인 계기는 신입 감독의 ‘현장경험’ 부족과 문광부의 능력 인사가였다. 특히 문광부는 지난해 11월 손진책 예술감독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뒤 석 달 동안 국립극단을 반 휴업 상태로 방치했다. 또한 후임감독 인선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자들이 노출되는 등 갖가지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사실 문광부의 능력인사는 남의 일이 아니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을 지휘할 아시아 문화개발원장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 수개월째 공석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광주시도 지난해 말 사퇴한 노성대 전 광주문화재단 대표의 후임 선임을 방치하면서 광주시 문화정책실장이 3개월째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6·4

모집으로 바뀌면서 최근 정치인 출신이나 콘텐츠 전문성이 부족한 일부 인사들이 뒷선에 ‘대시’한다는 소문도 흘러 나온다. 작년 말 공모를 마감한 아시아 문화도시 추진단장도 문광부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일부 인사의 내정설이 퍼지고 있다.

세상에 오래 비워두면 관청은 자리는 없다. 문화예술기관장의 장기간 공백은 업무 부실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광주는 문화전당 완공(10월),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18일) 등 지역의 미래를 바꿀 빅 이벤트들이 속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더 이상의 능력인사는 곤란하다. 지금처럼 조직의 수장이 오래 비어도 ‘잘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다면 차라리 ‘의자’를 빼던지. (편집국장·문화선임기자)

## 무등현대미술관, 11월까지 토요일 문화학교

무등현대미술관(관장 정송규)은 오는 11월22일까지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2014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Come Together 조형예술학교-에콜라주(에코+콜라주)’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3~11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4시까지 진행되며, 교육은 1~3기로 나눠 매 기수마다 10회차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강의형, 관람형, 체험형, 실연형 등으로 전문문화관, 무등산 일대에서 진행된다. 학생들은 친환경 표현재료와 폐품을 활용한 콜라주 작품을 만들게 된다. 또 자연과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하기, 친환경 자연재료로 작품 만들기, 전시 등도 함께 진행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으로, 기수 당 20명 정員이다. 문의 062-223-667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이성강 등 26일 개국 기념공연 전석 초대...국악방송 홈페이지 신청

광주국악방송 개국 기념 공연이 26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방송인 이근찬과 소리꾼 박애리의 사회로 진행

되는 이날 공연에는 광주 및 호남지역의 전통예술인이 출연,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광주시립국극단(윤진철)이 출연하며 박춘맹(전남도립국악단, 제14회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씨가 관소리를, 문명자·황승욱·이영애씨가 가요급 병창을 선사한다. 또 이생강·김영재·최경만

씨 등 명인들과 후학들로 구성된 시나위 연주단, 쌍둥이 가요급 가수 ‘가야랑’, 어린이 소리꾼 박애리가 출연하며 경기민요 김영임(사진) 명창이 특별 무대를 꾸민다.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되며, 국악방송 홈페이지(http://www.gugakfm.co.kr)를 통해 방청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062-602-9310. /김미은기자 mekim@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다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광주맛집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7위), 2008년(22위), 2010년(37위), 2012년(47위), 2014년(57위)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율동로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geumsoo.com